

수산물 안전성 조사

- 우리시에서 의뢰된 수산물을 검사하여 유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시민건강 보호에 일익을 기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7년 1월~2007년 12월
- 조사 대상
- 수산진흥과에서 의뢰하는 수산물
- 조사항목 : 중금속(총수은, 납, 카드뮴), 항생물질(옥시테트라사이클린)

	중금속	항생물질
검사건수	20건	6건
검사항목	총수은, 납, 카드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검사결과	패류 14건 적합 어류 6건 적합	어류 6건 적합

2. 실험 방법

- 식품공전 제7. 일반시험법 6. 유해성금속 시험법
- Pb와 Cd는 graphite A.A.S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 Hg는 NIC SP-3D(nippon instruments) 사용

3. 조사 결과

- 검체종류별 현황
- 패류는 14건으로 종류별로 보면 개조개 4건, 바지락 4건, 미더덕 1건, 고동 1건, 꼬막 1건, 개우럭 1건, 백합 1건, 기타 1건임

품목	합계	개조개	바지락	미더덕	고동	꼬막	개우럭	백합	기타
건수	14	4	4	1	1	1	1	1	1

- 어류는 6건으로 종류별로 보면 넙치 2건, 잉어 2건, 뱀장어 1건, 향어 1건임

품목	합계	넙치	잉어	뱀장어	향어
건수	6	2	2	1	1

□ 검체종류별 결과

- 패류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수은 평균함량은 0.0153(0.0031~0.0315) mg/kg 이고, 납의 평균함량은 0.1248(0.0098~0.3546) mg/kg이며, 카드뮴의 평균함량은 0.0895 (0.0015~0.3050) mg/kg으로 나타났다.
- 패류의 품종별로 살펴보면 개조개에서 총수은(0.0315 mg/kg), 납(0.3546 mg/kg)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우럭에서 카드뮴(0.3050 mg/kg)의 함량이 높았다.
- 어류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수은 평균함량은 0.0634(0.0362~0.0938) mg/kg 이고, 납의 평균함량은 0.0704(0.0252~0.1641) mg/kg이며, 카드뮴의 평균함량은 0.0037 (0.0035~0.0077) mg/kg으로 나타났다.
- 어류의 품종별로 살펴보면 넙치는 총수은(0.0938 mg/kg)의 함량이 향어는 납(0.1641 mg/kg)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뱀장어는 카드뮴(0.0077 mg/kg)의 함량이 높았다.
- 수산물 20건에 대한 Hg, Pb, Cd 함량분석 결과 국내 중금속 잔류기준 각각 0.5 mg/kg, 2.0 mg/kg, 2.0 mg/kg을 초과하는 시료는 없었으며 전부 적합하였다.
- 어류 6건에 대한 항생물질(옥시테트라싸이클린)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4. 문제점 및 대책

-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 중앙(수산물 품질검사원)으로 위임 됨(2005.07.27)에 따라 수거건수가 적어 대표성이 결여됨
-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원 실정에 맞는 항생물질 검사항목 조정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스피라마이신,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5. 조치사항

- 관련부서에 조사결과 통보(시 수산진흥과, 강서구청, 기장군청)